

중 학교

열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통일교육원

이 책은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한 참고자료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

열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I 남북이 함께 만드는 새 천년 새 역사 / 1

1. 남북 분단의 현실 / 3
2. 다른 분단국들의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 / 7
 - (1) 동독과 서독의 하나 되기 / 7
 - (2) 중국과 대만의 다가서기 / 9
3. 남북 정상 회담 이후 남과 북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 10

II 북한 사람들의 삶 / 15

1. 북한은 어떤 곳인가? / 17
2.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 18
 - (1) 새롭게 북한 바라보기 / 18
 - (2) 탈북자와 식량문제 / 21
3. 북한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은 어떠한가? / 23
 - (1) 북한 사람들은 어떤 옷을 주로 입을까? / 23
 - (2) 북한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은 어떤 것일까? / 25
 - (3) 북한주민의 주택 및 주거사정은? / 26
4. 북한 사람들의 경제 생활은 어떨까? / 28
 - (1) 직장생활은 어떻게 할까? / 28
 - (2) 배급 제도를 실시한 결과는 어떨까? / 28
5. 북한 사람들의 여가 및 문화 생활은 어떨까? / 33
 - (1) 북한 사람들은 언제 휴일·휴가를 가질까? / 33
 - (2) 여가는 어떻게 보낼까? / 33

- (3) 북한 사람들은 스포츠를 얼마나 즐기고 있을까? / 35
- (4) 북한 사람들이 우리의 대중가요를 부른다는데? / 36
- 6. 북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어떨까? / 38
 - (1) 북한 사람들은 방송을 얼마나 즐기고 있을까? / 38
 - (2) 북한도 우리와 같은 명절을 보낼까? / 38
 - (3) 북한에서는 종교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 40
- 7. 북한의 교육제도는 어떨까? / 41
 - (1) 북한의 학제도 우리처럼 초·중·고로 나뉘어 있을까? / 41
 - (2) 북한의 고등중학교 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배울까? / 41
- 8. 북한 학생들의 학교 생활은 어떨까? / 42
 - (1) 북한의 고등중학교 학생의 하루 생활은 어떨까? / 42
 - (2) 시험은 어떻게 치를까? 유급이나 퇴학이 있을까? / 43
- 9. 북한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은 어떨까? / 44
 - (1) 북한 청소년들은 과외 활동을 어떻게 하나? / 44
 - (2) 북한 청소년들은 컴퓨터를 얼마나 즐기고 있을까? / 46
 - (3) 우리처럼 팬클럽을 만들 정도로 인기 있는 연예인이 있을까? / 47
 - (4) 북한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만화영화는? / 48

Ⅲ 하나됨을 위하여 / 51

- 1. 왜 통일을 해야 할까? / 53
 - (1)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살기 위하여 / 53
 - (2) 이산의 아픔을 넘어 한겨레로서의 삶을 위하여 / 54
 - (3) 남북의 분단 비용을 줄이기 위해 / 55

(4) 우리 민족의 역량을 키워 복지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 / 56

(5) 당당한 세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 56

2.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야 할까? / 57

(1) '완전한 통일' 보다는 '사실상의 통일' 을 먼저 / 57

(2) '제도의 통일' 보다 '마음의 통일' 을 먼저 / 58

(3) '평화 지키기' 못지않게 '평화 만들기' 노력도 / 60

(4) 북한의 변화를 도와가며 함께 발전하는 길로 / 62

(5) 주변국가들의 협력과 뒷받침을 통일의 서까래로 / 63

3. 통일을 준비하는 청소년의 마음가짐과 자세 / 65

(1) 주인 정신을 갖자 / 65

(2) 강한 의지력을 키우자 / 65

(3)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 66

(4) 현명하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자 / 66

(5) 남의 말을 귀담아 듣고 내 의견을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능력을 키우자 / 66

(6) 세계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자 / 67

(7) 남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자 / 67

(8) 민주 시민으로서 질서를 습관화하자 / 68

(9) 화해와 나눔의 정신을 갖자 / 69

(10) 서로 다름을 이해하자 / 70



남북이 함께 만드는 새 천 년 새 역사

시원스레 맘의 문을 열고 우리가 나갈 길을 찾아요
더 행복할 미래가 있어
우리엔 우리들이 항상 바라는 것
서로가 웃고 돕고 사는 것
이젠 함께 하나를 보며 나가요
언젠가 나의 작은 나의 땅에 경계선이 사라지는 날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희망들을 가득 담겠지
난 지금 평화와 사랑을 바래요
젊은 우리 힘들이 모이면 세상을 흔들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손을 잡은 것으로 큰 힘인데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 중에서)

1. 남북 분단의 현실
2. 다른 분단국들의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
3. 남북 정상 회담 이후 남과 북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I. 남북이 함께 만드는 새 천 년 새 역사

1. 남북 분단의 현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힘들었던 35년간의 일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광복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고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우리 민족에게 많은 시련과 고난을 가져온 분단이 어떤 원인과 경위를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분명히 말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반도의 분단은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난 직후,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한 연합국의 전후 처리 과정의 한 부산물이었다는 점이다.

식민지 시대 전체를 통해 볼 때, 우리의 독립 운동은 국내외에서 부단히 계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뒤따랐던 독립 운동이 광복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반도의 운명은 결국 강대국의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분단 원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한 뒤, 미국과 소련이 패망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실패한 역사의 책임을 외부에 묻기에 앞서 스스로 책임 지려는 주체적 역사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어두운 역사에 대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민족 내부적으로 민족 통일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단합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분단의 원인 중의 하나로 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독립 투쟁 과정에서나 정부 수립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단합하지 못하고 이념적으로 분열됨으로써 외세로 하여금 우리의 허점을 이용할 수 있도



8·15 광복

록 해 준 결과가 되었고, 이것이 국토 분단의 비극을 가져온 것이다.

우리 민족은 어느덧 분단 이후 반세기 이상의 세월을 보내왔다. 그러다 보니 우리 처럼 젊은 세대들은 민족 분단의 아픔을 잘 느끼지 못한다.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 늘

이야기하지만, 막상 남북으로 헤어진 수많은 이산가족들은 만나지도 못하고 있다. 또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이야기하면서도 통일 후의 비용을 걱정하여 이산가족의 아픔보다는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의 짐이나 되지 않을까부터 고민한다.

우리 민족은 분단 상태를 오래 지속해 오면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많은 분단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산가족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균형적인 국토 개발의 어려움,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통한 민족적 역량 신장의 어려움, 동북아시아 인적·물적 교류의 중심지로의 진입의 어려움, 그리고 휴전 체제로 인한 경제 손실과 심리적 불안감 등 수많은 분단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적 고통과 막대한 분단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은 그동안 남북한 사이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꾸준히 있어 왔다. 그중에서 남한과 북한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것 중의 하나가 1991년 12월에 이루어진 '남북 기본 합의서'와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이다. 이 두 합의서는 남북한이 통일로 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합의이다. 그 내용은 서로를 인정하고 신뢰와 화해 협력을 지향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리 민족 간에 서로 믿지 못하고 전쟁의 공포에 싸여 산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합의한 것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약속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믿음은 서로 간의 잦은 만남



1991년 남북기본 합의서 서명

과 실천으로 키워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남북한의 만남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민적인 관심과 이해를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광복 전후의 불행했던 과거를 되돌아보고 이를 극복하여 민족 통일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클릭 알고 싶어요

○ 남북 기본 합의서 서문의 주요 내용

- 남과 북은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함.
-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함.
-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함.
-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함.
-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함.



클릭

알고 싶어요

○ 6·15 남북 공동 선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통	령	국	방 위 원 장
김	대	중	김	정 일



생각해 보기

우리 민족이 분단되어 있음으로 인해 받는 아픔과 피해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다른 분단국들의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

(1) 동독과 서독의 하나 되기

제2차 세계 대전 이래 동·서독은 각기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서 갈등과 대결 관계를 유지해 왔다. 서독은 우월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독과 교류하는 국가와는 교류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할슈타인 원칙’ (Hallstein Doktrin, 1955년)에 따라 동독과 민간 교류는 하되, 정부 차원에서의 관계 개선에는 미온적인 입장을 취했다. 동독 또한 바르샤바 조약 기구 국가들(소련, 폴란드, 헝가리 등 동구권 국가)에게 “서독이 동독과 정상적인 관계를 이루기 전에는 서독을 국가로서 승인하지 말도록” 요청하며 서독과 대립 관계를 지속해 왔다.

이러한 동·서독 간의 대립 관계를 종식시킨 것은 두 독일 최고 지도자 간에 이루어진 동·서독 정상 회담이었다. 1970년 3월 서독의 브란트 총리가 동독의 에르푸르트를 방문하여 동독의 슈토프 각료 회의장과 정상 회담을 하면서 교류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양독 정상 간의 첫 만남은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하는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그러나 동·서독은 두 달 후 제2차 정상 회담을 갖고 본격적인 관계 개선에 합의함에 따라 1972년 12월에 드디어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는 기본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기본 조약 체결 이후 우편, 통행, 통신, 방송·언론, 환경, 경제, 과학 기술 등 각 부문별로 다각적인 협정이 맺어져 양독 주민들 사이에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서독에서 동독 지역으로 가는 전화 통화는 1988년 4천만 회에 달했으며, 우편은 2억 통의 편지와 3천6백만 개의 소포가 상호 교환되었다. 방문 및 여행자 수에 있어서는 1980년대 이후 급격히 늘어나 매년 8~9백만 명에 달하였다. 아울러 언론·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통일을 자축하는 독일 국민들

문화·체육인의 교류뿐 아니라 보건·환경 및 과학 기술 등 각종 분야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다.

물론 이러한 동·서독 간의 다양하고 활발한 교류는 서독의 브란트 총리가 추진한 '동방 정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브란트 총리가 추진한 '동방 정책' 이전에 서독은 동독이 서독에 병합되는 '힘의 우위 정책'에 바탕을 둔 통일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보다 많은

접촉과 교류를 통한 분단의 평화적 관리, 점진적 통일이라는 '작은 걸음마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서독 간의 갈등과 대결은 점점 더 줄어들고 서로 의존하는 관계로 나아가, 1990년 통일 이전에 이미 동·서독 주민들 마음속에서는 동서를 가르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1989년 11월 9일 동서 냉전의 상징물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으며, 장벽이 무너진 뒤 1년도 되지 않은 1990년 10월 3일 동독과 서독은 통일을 이루었다.



생각해 보기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2) 중국과 대만의 다가서기

1949년 8월 국민당 정부는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하여 대만으로 수도를 옮기고, 대신 공산당이 1949년 10월 중화 인민 공화국을 수립함으로써 중국의 분단이 시작되었다. 그 뒤 1971년 10월 25일 중화 인민 공화국(중국)이 중화민국(대만)을 축출하고 유엔(UN)에 가입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절대 우위의 외교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 이후 중국과 대만은 가끔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정도로 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어왔다. 중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정부의 '대만의 실체 및 국제적 활동 인정 우선'이라는 입장이 서로 충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대만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과연 갈등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할 정도로 경제·사회 및 민간 교류가 엄청나게 활발하다.

중국의 '인민 일보' 보도 등에 의하면, 1988~1999년 동안 중국을 방문한 대만 사람은 1,750만 명이고, 공식·비공식 초청을 통해 대만을 방문한 중국인은 약 5만 명이며 교류 항목은 5,000여 가지에 이른다고 한다.

현재 대만인과 중국 본토인과의 결혼도 2만여 쌍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경제 교류는 대만이 무역 흑자의 80%를 중국에서 얻고 대만의 중국에 대한 투자가 중국 내 해외 직접 투자의 두 번째일 정도로 눈부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군사적 긴장과 정치적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해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특별 행정구' 방식, 즉 '일국양제(一國兩制)' 방식의 통일을 주장하는 반면, 대만은 스스로 주권을 가진 정치적 실체로 중국이 대만의 정치적 실체나 역사 해석을 인정하지 않는 한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정치·군사적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교류는 활발한 중국·대

만의 다가서기 노력은 우리의 남북 관계에 많은 생각할 점을 준다. 첫째, 실용주의적 접근의 효과를 들 수 있다. 사상이나 이념을 떠나 서로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과 대만 간 활발한 교류는 분단되어 있는 두 정부 간의 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해외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화교)까지도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민족 통합의 계기로 작용하여 중국인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체제가 서로 달라 필연적으로 정치·사상·군사적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관계에서는 이 갈등을 완화시키는 스폰지와 같은 완충 영역이 필요한데,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 교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완충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점차 없애고 있다는 점이다.



생각해 보기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의 변화가 우리의 남북한 관계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3. 남북 정상 회담 이후 남과 북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2000년 6월 남북 정상 회담 이후 남북한은 분단 50여 년 동안 이루지 못한 새로운 만남을 시도하고 있다. 남과 북의 사람들이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활발하게 오고 가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은 남북 정상 회담 이후 일어난 일들로서 남북한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해진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만나는 이산가족의 상봉은 1985년에도 있었다. 그 당시 북쪽 이산가족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께서 은덕을 베풀어 이렇게 상

봉을 이뤄주시니 …… 우리는 잘 먹고 잘 산다.”는 식의 판에 박힌 듯한 말만하여 상봉하는 가족들 사이에 서먹서먹함과 안타까움을 주었다. 그러나 2000년에 상봉한 북한 측 이산가족들은 한결같이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은덕을 내세우면서도 “앞으로



2000년 남북정상회담

꼭 통일된 나라에서 다시 가족이 만나야 한다.”는 말을 하며 남쪽의 가족들과 진한 혈육의 ‘작은 통일’을 이룩했다.

이제 남북한은 이산의 고통이 영원히 사라지도록 보다 더 노력해 나가야 하겠다.

그동안 남북 당국자 간 만남은 ‘짧은 만남’과 ‘긴 이별’을 반복해 왔다. 1990년대 초에 고위급 회담이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지만,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기구가 가동되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행되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남북한 간의 신뢰 구축, 긴장 완화, 교류 협력 등 많은 문제들은 늘 명분 속에서만 걸돌 뿐 실제적으로 해결되어 가지 못했다.

그러나 남북 정상 회담 이후 남북한은 약간의 우여곡절은 있지만 과거와는 달리 남북 당국자 간 대화와 만남을 제도화하며 교류 협력을 꾸준히 증대시켜 나가고 있다.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갈 수 있는 장치를 하나 하나 만들어가고 있다. 남북 당국자간 믿음을 다지기 위해 남북장관급 회담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북한과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 남북 경제 협력 실무자 접촉도 열렸다. 그리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국방 장관 회담이 열려 경의선 연결을 위한 비무장 지대 지뢰 제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 건설 현장

라들과의 무역 관계처럼 많은 경제 협정들이 필요하다. 남과 북은 그동안 이러한 경제 협정 없이 무역 거래와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다 보니 규모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만일 이런 제도적 장치들이 만들어진다면 남북한의 경제 교류 협력은



반세기만에 만난 이산가족들

거, 군사적 신뢰 구축 등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경제 분야를 시작으로 각 분야별 협력 사업을 협의하고 실천해 나갈 남북 간 기구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남과 북은 국가 간 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의 특수한 관계이다. 그러나 다른 나

더욱 활발해지고 증대될 것이다. 남북한이 경제 교류를 활발히 하고자 하는 것은 남과 북이 균형적으로 발전해 나아가, 미리 통일 준비도 하고 민족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민족 경제권을 만드는 데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남

북 관계에 눈이 팔려 당장 통일이 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과거 동·서독이나 현재의 중국·대만이 보여주듯이 자유롭게 오가며 서로 돕고 이익을 나누는 남북 관계를 만드는 일이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남북한이 그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 공존의 반석 위에 오르도록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여야 한다.



경의선 '염원의 열차' 출발

남북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될 때까지 우리 청소년들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평화가 소중함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남과 북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서로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며, 한 핏줄 한겨레임을 이해하는 마음도 가져야 한다.

통일은 우리의 작은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가 만들어주거나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남과 북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준비하는 데 청소년 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이 이루어질 때를 대비하여 통일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 독일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은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를 보다 바람직한 민주 시민 사회로 건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 보기

경의선 철도가 복원된다면 남북한 모두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II

북한 사람들의 삶

1. 북한은 어떤 곳인가?
2.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3. 북한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은 어떠한가?
4. 북한 사람들의 경제생활은 어떨까?
5. 북한 사람들의 여가 및 문화 생활은 어떨까?
6. 북한 사람들의 일상 생활은 어떨까?
7. 북한의 교육 제도는 어떨까?
8. 북한 학생들의 학교 생활은 어떨까?
9. 북한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은 어떨까?

II. 북한 사람들의 삶

1. 북한은 어떤 곳인가?

북한은 국제 사회에서 우리와 동등한 유엔(UN)의 한 회원국으로서 하나의 주권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민족이면서도 분단되어 살고 있으므로 남과 북 사이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한 관계' (남북 기본 합의서 서문)로 되어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남북 간의 교역도 '수출·수입' 이라고 하지 않고 '반출·반입' 이라고 한다.

북한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중요시하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와는 달리 이념과 정치, 집단을 우선시하는 사회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사회주의를 '우리식 사회주의' 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수령의 유일 영도에 따라 수령·당·인민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는 수령 영도 체제에 바탕을 둔 북한 특유의 사회주의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 이념과 가부장적 봉건 이념이 결합된 사회로서 주민들은 이러한 사고방식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체제 유지를 위해 117만 명의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이 막강한 사회이기도 하다.

북한의 행정 구역은 광복 이후 50여 차례에 걸쳐 조정되어 왔는데, 면 단위의 행정 구역이 폐지된 현재는 4직할시, 9도, 24시, 31구역, 146군, 2구, 146읍, 3,255리, 1,137동, 255노동자구로 편성되어 있다.

한편 북한에는 지금까지 총 360여 종의 광물 자원이 확인될 정도로 자원이 풍부하다. 북한에는 경제성이 있는 유용 광물만도 200여 종에 이르고 있다. 이중 마그



북한의 행정 구역

네사이트는 전 세계 매장량의 1위(전 세계 매장량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10위 안에 드는 광물도 중석, 몰리브덴, 흑연, 중정석, 형석 등 7가지나 된다.

북한은 그동안 이렇게 풍부한 지하 자원을 토대로 자립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군사력 증강에 힘써 왔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라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약간의 변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주민에 대한 식량 배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

아 자율적인 경제 활동이 많아지면서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개인주의적이며 물질적인 사고방식도 많아지고 있다.

2.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1) 새롭게 북한 바라보기

새 천년 들어 역사적인 남북 정상 회담이 이루어졌다. 이 정상 회담 이후 북한은 어느덧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가까운 이웃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북한은 과거 6·25 전쟁을 통해 동



클릭

알고 싶어요

○ 북한에 대한 일반 사항

북한이 현재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국가명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며, 1948년 9월 9일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다. 국가는 애국가(우리나라의 애국가와 곡조·가사가 다름)이며, 국화는 목란이고, 수도는 평양(Pyeongyang)이다. 우리나라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 인구는 2001년 현재 2,225만여 명이며, 국토 면적은 122,762km²(한반도 전체 면적 222,418km²의 55%)이다. 흥미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달리 북한은 여자의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이다.

○ 노동자구

노동자구는 일정 수 이상의 성인 주민들이 살고 있고, 이들의 65% 이상이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공장·광산 등에 조직되는 행정 단위를 말한다.

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하였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며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남북한 사이에 교류 협력이 활발해지고 서로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북한에 대한 인식은 새로워지고 있다. 우리에게 대한 안보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와 더불어 평화롭게 같이 살고 통일을 만들어 가는 '동반자'라는 생각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남북 정상 회담



6·25 전쟁의 비극



2000년에 열린 남북 국방 장관 회담

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남북 화해·협력 시대가 열리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동반자로서의 북한이 보다 더 부각되고 있다.

우리는 남북 정상 회담이 이루어졌다 해서 안보 위협 대상으로서의 북한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남과 북이 영원히 평화롭게 같이 살기로 약속하면서 현재의 휴전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지 않는 한, 북한은 우리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동반자' 이면서 '안보 위협 대상자' 이기도 하는 이중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북한과 화해·협력을 통해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북한의 적화 통일 의지를 더불어 살아가는 의지로 바꾸도록 하고, 북한을 우리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만들어 나가야겠다.



생각해 보기

흔히 우리가 북한을 가리켜 '대결의 상대' 이면서 '한 동포' 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탈북자와 식량 문제

탈북자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탈북 원인을 보면, 처음에는 개인적 차원이 많았으나 나중에는 사회적 차원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0년대 이후 북한에 식량난이 일어나면서 폐쇄적인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이나 러시아를 떠도는 탈북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즉, 처음의 탈북자 발생 원인의 대부분은 개인적 비리와 체제에 대한 부적응이 주된 요인이었으나, 나중에는 식량 부족으로 인한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아주 어렵게 사셨던 때가 있었다. 소위 '보릿고개'라고 부르는 먹고살기 힘든 시절이 있었다. '보릿고개'는 봄이 되어 먹을 것이 없어서 덜 익은 보리를 추수하여 죽 등으로 만들어 겨우 입에 풀칠만 하던 시절을 일컫는 말이다. 그것이 불과 수십 년 전의 일이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은 처음부터 어려웠던 것일까? 아니라면 왜 생겼을까? 북한은 우리나라와 달리 산간 지대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작지 중 논과 밭의 비율이 7:3이라면 북한은 3:7로 본래 밭작물이 주식이 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조건이다. 그래서 북한의 식량 자급도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경작지를 모두 농사에 사용해도 최대 65%정도의 수준이다.

1980년대 이전까지 북한의 식량 사정이 그렇게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은 북한 경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잘 유지되고, 일부 부족한 식량은 소련이나 중국이 도와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사회주의권이 붕괴하여 소련으로부터 식량 지원이 중단되고 경제난으로 농업 관련 산업이 피폐해짐에 따라 산업으로서의 농업 기반



다락밭의 모습

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주체 농법' 이라고 하는 북한의 농업 경작 방식이 토지 생산성을 더욱 저하시키고 자연재해마저 수년 연속 겹치면서 식량 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났던 것이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농토 및 여기서 생산된 농작물에 대한 개인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

지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예컨대, 북한의 농부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여도 그 대가가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고 정해진 배급량만을 받기 때문에, 수확량을 증대시키려는 의욕을 가지기 어렵다. 농작물의 개인 소유가 인정되는 텃밭의 수확량이 같은 면적의 집단 농장 수확량에 비하여 높다는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북한의 농민들이 노동에 대한 의욕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래 북한은 자급자족 경제를 강조해 왔지만, 언제나 식량의 완전 자급이 주요 과제였다. 그래서 일찍이 '의식주'가 아닌 '식의주'를 강조해 왔는데, 식량 부족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북한 당국은 '쌀은 공산주의다'라는 구호까지 내걸고 식량 문제 해결에 안간힘을 써왔다. 최근에는 감자 농사 혁명을 강조하며 감자를 주식화하고, '먹는 문제' 해결에 노력 중인데, 농업 기반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이러한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클릭

알고 싶어요

○ 주체 농법

주체 농법이란, 김일성 주석의 교시에 의해 1976년부터 도입된 '식량 위주로 농업 생산'을 하는 방식이다. 북한은 이를 위해 비료를 너무 과다하게 투입하거나 작물을 촘촘히 심고 있다. 그러다 보니 땅이 곡식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지력을 잃어갔다.



생각해 보기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3. 북한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은 어떠한가?

(1) 북한 사람들은 어떤 옷을 주로 입을까?

북한 주민들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옷을 입는 단순한 차림이 대부분이었다. 남자는 인민복에 레닌모를 쓴 '모택동복', 여자는 흰 저고리에 검정 통치마 한복 차림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979년 4월 김일성 주석이 "평양시 등 대도시 주변 인민들은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유색 복장을 해야 한다."라는 교시를 내리면서 북한 주민들도 점차 양복이나 양장 차림의 옷을 입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2년 4월 최고인민회



양장 차림의 평양 여성

의에서 김일성 주석이 “여성들이 소매 없는 옷과 앞가슴이 많이 팬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사회주의 양식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후에는 옷의 색상과 디자인도 다양해졌다. 이때부터 북한의 당 기관지나 방송 매체에는 패션 관련 기사들을 다루기 시작하였으며 북한 주민들의 멋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져 갔다. 평양시 피복연구소 주관 하에 춘추의류전시회, 평양시 옷 전시회 등도 열리고, 1995년 4월에는 ‘세계체육문화축전’을 앞두고 처음으로 패션쇼까지 열렸다. 말하자면 북한 주민들도

1980년대 이전까지는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맞게 입어야 한다.”라는 당의 요구 아래 주로 의복의 ‘1차적 기능’ (몸의 보호기능)에 맞추어 옷을 입다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점차 의복의 ‘2차적 기능’ (멋의 창조)도 생각하며 패션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갖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니 스커트나 티셔츠에 청바지 같은 옷차림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행여나 짧은치마를 입더라도 치마 길이가 무릎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 19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여한 임수경 양의 영향으로 티셔츠에 청바지 같은 캐주얼한 옷차림을 북한 청소년들도 좋아하게 되었지만 ‘자본주의 황색 바람’이라며 단속하는 북한 당국 때문에 입을 수 없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옷차림이

1980년대 들어 다양한 양복·양장 차림으로 변화하고 유행도 생겨나고 있지만, 이것은 주로 평양 등 대도시 주민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다른 지역의 일반 주민들은 여전히 잠바나 바지, 스웨터, 인민복, 작업복 차림이 대부분이다.

(2) 북한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은 어떤 것일까?

북한 지역의 음식은 대체로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등 지역에 따라 그 특색이 나뉜다. 평안도 음식 중에서는 냉면이 유명하며, 함경도는 창란젓, 명란젓, 명태순대, 명태식혜 등 명태를 이용한 음식을 자랑한다. 황해도는 녹두묵채, 보쌈김치, 새우찜, 김치순두부 등이 유명하며 강원도의 자랑은 특산물인 금강산 송이버섯을 이용한 요리를 꼽는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식량난을 겪으면서 이러한 다양한 지역 특산 음식을 요리해 먹기 어렵다고 한다. 주식도 부족하지만 갖가지 종류의 양념과 부식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식생활에 필요한 음식 재료들을 배급 제도에 의해 각 직장에서 발급 받은 배급 카드를 가지고 국영 상점에서 보통 15일마다 구매하고 있지만, 2002년 7월부터는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후 배급제도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나마도 식량난 이후 제대로 배급이 안되고, 국영 상점에 필요한 상품들이 잘 구비되어 있지 않아 재료가 적절히 들어간 음식을 먹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 주민들의 주식은 쌀이 아니라 옥수수다. 최근에는 감자도 주식으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인데, 완전히 쌀로만 주식을 삼는 사람은 평양에 사는 일부 특권 계층뿐이다. 그래서 북한에는 주식인 옥수수, 감자를 재료로 하는 음식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

(3) 북한 주민의 주택 및 주거 사정은?



북한의 단독 주택

북한에서 주택은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공급된다. 우리 나라처럼 별도의 저축에 가입할 필요도 없고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청약할 필요도 없다. 그냥 신청서에 도장을 찍은 후 기다리면 된다.

대도시의 중간 간부급 이상의 주민들은 보통 방 2~3칸 짜리 아파트를,

일반 주민들은 방 1~2칸 짜리 연립 주택을, 그리고 농민들은 보통 방 1~2칸의 농촌 단독 주택을 배정받아 살고 있다. 즉 북한 주민들은 계층과 신분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는, 각 등급의 독립 가옥이나 연립주택·아파트 등을 임대 형식으로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전기세, 물세, 관리비 등은 집의 크기에 따라 달리 내야 한다. 이를 '주택 사용료'라고 부르는데 북한 당국은 노동자나 사무원들이 사용하는 주택의 사용료는 생활비 지출액의 0.3% 수준이며 연료비 및 기타 사용료를 포함해도 세대당 생계비의 3% 내외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전은 경제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던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경우이고, 2002년 7월 가격제도 개혁 이후에는 주택사용료 등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별로 의미가 없다.

북한의 주택 사정은 상당히 어려운 편이다. 신혼 부부의 경우 4~5년 정도 기다려야 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는 차례가 돌아올 정도로 어려워 한 주택에 2가구가 같이 사는 '동거살이'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가까운 장래에 살집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며, 때로는 각 직장이나 협동 농장에

서 집단으로 주택을 건설해 주어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주택의 난방 및 취사 연료는 대부분 구멍탄, 갈탄, 목재, 농작물 폐기물, 열진(가루로 된 석탄) 등을 사용한다고 한다. 석유나 가스 연료, 인근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을 사용하는 난방은 대도



북한의 일반 아파트

시의 고층 아파트나 중소 도시의 일부 아파트에서만 사용된다. 전기와 수도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전·단수가 자주 일어나고, 지방 아파트나 연립 주택의 경우 아예 온수관 자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 주민들은 공동 주택을 ‘하모니카집’ 또는 ‘토끼집’ 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에서는 가전 제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신분의 높고 낮음과 재산이 많고 적음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세간살이에 대해서 “사람이 살려면 오장육부가 있어야 하듯이 가정에도 ‘5장 6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며, ‘5장 6기’를 갖추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여긴다. 5장이란 이불장·양복장·책장·신발장·찬장이고, 6기란 TV수상기·냉동기·세탁기·재봉기·사진기·선풍기 등이다. 그러나 실제로 일반 주민들은 ‘2장 3기’ 정도의 세간만을 갖추고 있다.



생각해 보기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 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북한 사람들의 경제 생활은 어떨까?

(1)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할까?



북한 노동자들의 모습

북한은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사회주의 노동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7시간제나 6시간제도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노동의 경우는 7시간,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여성 노동자의 경우 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노동 실태는 이와 다르다는 것이 북한 이탈

주민들의 말이다.

남성 노동자는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저녁 8시에 퇴근함으로써 총 13시간을 직장에서 생활한다. 13시간 중 2시간은 노동신문이나 당의 지시문을 읽는 독보회라든가, '작업총화'라 하여 정치 학습을 하는 시간이다.

한편 여성 노동자의 경우, 남성 노동자보다 출퇴근 시간이 빠르고, 작업 시간 중간에 유아를 가진 여성 노동자에게 30분의 수유(授乳) 시간을 주고 있다.

(2) 배급 제도를 실시한 결과는 어떨까?

북한에서는 주민들에게 임금을 비롯해서 의식주에 필요한 기본 생활 필수품을 국가에서 배급한다. 북한의 분배 형태는 1차적 분배 형태와 2차적 분배 형태로 나뉜다. 1차적 분배 형태란, 노동의 질과 양에 따른 분배로 임금 형태로 지불되는 분배 형태이다. 북한의 계층별 임금 수준을 보면, 일반 사무직과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60원에서 100원 정도이고, 당·정무원·군간부·인민 배우들의 임금 수준은 최저 200원에서 최고 500원 정도로 계층별 임금 격차가 최고 10배를 보이고 있으나, 2002년 7월이후 계층별 임금 수준은 20~30배 인상되었다. 일반 주민들의 임금 수준은 대체적으로 경노동보다 중노동이, 중노동 중에서도 위험한 직종의 노동이 높고, 또 사무직보다 일반 노동직의 보수를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나 나름대로 노동 강도를 고려하여 임금을 차별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2차적 분배란, 국가 세출을 통하여 보조금 지불 형태로 각 개인에게 최종적으로 부여되는 사회적 소비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교육, 주택, 의료, 식량 등에 대한 지불을 말한다. 북한은 “노동자들은 먹고, 입고, 집을 사는 데만 한 해 동안에 매 세대에 1,300~1,500원의 추가적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월평균 100~125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과장된 것이다. 영국의 경제조사 기관인 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 따르면, 북한의 1인당 GNP 중 이 부분은 1/3 정도만 차지한다고 한다. 2차적 분배가 갖는 적극적 의미는 소위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라는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에 입각하여 소득 격차를 축소하고자 하는 데 있다.

실제로 북한은 제도적으로 300원의 임금을 받는 부부장급 배우자는 가사 노동에만 종사하게 하고, 70원의 소득을 받는 일반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는 70원의 임금을, 190원의 임금을 받는 대학교원의 배우자에게는 65원의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소득의 평준화를 유도해 왔다. 그 결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가계 총소득(가장소득 + 배우자소득 + 미분가 자녀소득)의 계층 간 소득 격차가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이렇게 제도상 평준화된 양상을 보인다고 해

서 경제 생활 수준 자체도 현실적으로 평등하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주민의 모든 의식주와 관련된 재화들이 국가의 배분에 따라, 심지어 최고 통치자의 '시혜적 기준'에 따라 계층별로 차별적으로 배급됨으로써 실제로는 극심한 소비 생활 수준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당의 유일 영도에 따라 모든 것이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부유함 정도가 정확히 일치되어 있다.

북한은 “국가는 인민의 생활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인민 생활을 골고루 급속히 향상시키면서 생활 수준의 격차를 없애는 데 힘을 쏟고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의식주 및 생필품의 배급 체계를 처음부터 차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급수별 1일 식량공급량

급 수	1일 식량공급량	대 상 자
1급	900g	유해직종 종사자, 중노동자
2급	800g	탄광·광산의 갱내외 운반공, 중장비 운전자
3급	700g	일반노동자
4급	600g	대학생, 연로보장자 중의 공로자, 투병중인 환자
5급	500g	고등중학생
6급	400g	인민학생
7급	300g	연로보장자, 가두여성, 유치원생, 기타 부양자
8급	200g	2~4세 어린이, 죄수
9급	100g	1세 이하의 유아

계층별 식료품 배급 체계

구 분	해당 성분	공 급 량	공급처	비 고
매일 공급 대상자	당 및 정부 기관 핵심 간부, 김정일 비서, 개인서비스 요원 등	쌀 700g(백미10:잡곡0), 잡곡 4가지, 육류 15~20kg, 과일 60~80kg, 맥주 60병, 담배 60갑	호위총국 공급과	특별 계층
1주 공급 대상자	중앙당 부부장, 정무원 부총리, 제1호 부고급 장교, 장성급 장교 등	식량 700g(백미3:잡곡3), 잡곡 3가지, 육류, 야채, 맥주, 담배 등 필요량 (매일공급대상자와 비슷)	당 재정 경리부	특별 계층
2주 공급 대상자	정무원부장, 부부장, 최고인민회의부의장, 정무원 각 부처 국장, 과장, 항일 투사 유가족, 영웅 칭호자 등	식량 700g(직급에 따라 7:3 또는 5:5), 육류 1kg~6kg, 생선 1kg~10kg, 계란 15~30개, 담배 30갑, 야채 등 직급별 차이	공급소에 배급 카드 제시 (1호~4호 공급소)	관직 소유자
인민반 공급 대상자 (15일마다 배급)	노동자, 사무원, 농민 등	식량 700g(2:8 농촌은 1:9), 생선 가구당 1개월에 1kg(실제 3~4개월), 육류 명절 특별 배급(1~2kg) 기타는 부식카드 제시하고 배급	동 배급소	관직 없는 일반 인민

주민들을 계층에 따라 중앙 공급 대상과 일반 공급 대상으로 나누고, 물자 공급 등급을 매일 공급 대상자, 1주 공급 대상자, 2주 공급 대상자, 인민반 공급 대상으로 세분하여 차별적으로 배급한다.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와 지방 도시, 농촌 등 지역에 따라서도 차별적으로 배급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평양 등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특권층에는 필요한 양만큼 매일 또는 수시로 배급하지만, 일반 주민들에게는 식량 배급표에 따라 월 2회 또는 매주 단위로 배급한다.

배급하는 식량은 유상으로 국정 소매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부식도 역시 배급제로 공급되는데, 가구별로 가족수에 따라 정해진 배급량을 할당받아 국정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다. 주요 공급 품목은 간장, 고추장, 된장 등 장류와 식용유,

계란, 육류, 당과류 등이고 나머지 품목은 자유 판매품으로 되어 있다. 당·정간 부들은 간장, 된장, 고추장, 식용유와 같은 필수 부식을 수시로 배급받지만, 일반 주민들의 경우 1년에 한 번 12장으로 되어 있는 배급 카드를 받아 매달 지정된 분량(간장의 경우 월 1l, 된장의 경우 500g, 식용유의 경우 월 400g)만큼 국영 상점에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실제로는 배급 할당량의 50~70% 정도만 공급받으므로 생일 잔치나 특별한 기념일에는 대부분 장마당에서 국정 가격 이상의 가격을 주고 구입하였다고 한다. 그나마도 1995년 이후부터는 심각한 식량난으로 이러한 공식적이며 제도적인 배급 체계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평양 이외의 대부분 지방에서는 제대로 배급이 안되어, 일부 지역별·계층별·연령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량난이 심각해지자 북한 당국은 외부 세계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고, '쌀은 공산주의'라는 구호와 '농업 제일주의 정책'을 내세우며, 각종 채소류와 나물, 밀가루를 이용한 대용 식품들을 보급하는 운동을 벌여 왔다. 그리고 구황 식품인 감자, 고구마를 공식적인 식량 배급제에 포함시키고, 심지어 도토리까지도 식량 개념에 집어넣기도 하며, 장마당에서의 식량 거래를 묵인하는 등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농업 생산 방식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해결 전망이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생각해 보기

북한에서 배급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장마당의 비중이 커지는 이유는 무엇 일까요?

5. 북한 사람들의 여가 및 문화 생활은 어떨까?

(1) 북한 사람들은 언제 휴일·휴가를 가질까?

북한은 직종 또는 지역에 따라 휴일이 다르다. 특히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 지역에 따라 휴일을 달리하고 있다. 이는 전력 사정이 어려워 돌아가면서 전력 공급을 중단하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날에 쉬도록 휴일을 배정하기 때문이다.

한편 휴가는 사회주의노동법이 규정한 대로 연간 14일의 정기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난으로 대부분의 공장·기업소가 가동되지 못하여 결근이 잦고 배급이 중단되면서 개인적으로 식량을 구하고자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여성의 경우는 산전·산후 총 150일간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각 직장마다 생산성을 높이하고자 정기 휴가 이외에도 휴양권이 주어지는데, 일부 노력 영웅 칭호를 받는 선택된 근로자에게만 기회가 있고, 일반 근로자들이 이것을 사용하기란 어렵다.

이 밖에 북한 주민들도 설날, 추석 등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이나 북한 당국이 정한 국경일인 노동당 창건 기념일, 김일성·김정일 생일(북한 주민들에게는 이날이 명절이다) 등 공식적인 휴일을 즐기고 있다.

(2) 여가는 어떻게 보낼까?

북한의 모든 일터와 직장은 국가의 관리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는 사무원, 노동자들 역시 계획된 일과표에 의해 생활하게 되어 있다. 휴일에도 각종 회의, 학습, 근로 봉사, 군사 훈련, 사회 정치 활동 등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다. 따

라서 자기 마음대로 여가 시간을 가지기 어려우며, 설령 여가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자기 취향대로 활용할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오락 시설도 부족하고 이용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평양 같은 대도시의 경우 공휴일에 주된 휴식 공간인 주변의 공원이나 유원지를 찾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있다. 평양 시민들은 휴일에 만경대유회장, 문수유회장 등 오락 시설을 이용하거나 온수 목욕이 가능한 창광원에 가기도 하지만, 사람이 많은 관계로 이용하기 어렵다. 또한 일부 신세대들은 디스코, 포커 등 자본주의적 놀이 문화로 여가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방의 경우에는 직장이나 지역 단위마다 세워져 있는 문화 회관의 체육 및 오락 시설을 이용하여 여가 활동을 한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즐기는 여가 수단은 집단적으로 관람하는 영화 감상이다. 영화 감상은 사상 교양의 일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주민들은 별다른 오락거리가 없어서 영화 보기를 즐긴다고 한다. 영화 관람 후에는 보통 '영화 감상 모임'이라는 토론회 형식의 집회도 이어진다. 영화의 내용이나 등장 인물로부터 본받거나 비판해야 할 점 등을 해설하고, 몇몇의 토론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말한 후 영화로부터 얻은 교훈을 사업과 생활에 그대로 반영하자는 결의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정치선전이나 혁명성이 짙은 영화보다는 남녀간의 사랑이나 주민들의 실생활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영화를 더 좋아한다. 그래서 1980년대 중반 신상옥 감독이 제작한 '사랑 사랑 내 사랑'이나 '길' 그리고 '도시처녀 시집와요' 등의 작품은 꽤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일요일에 만수대 TV에서 외국 영화를 방영하는 데 이는 평양 시민만 볼 수 있다.

그 밖에 북한 주민들이 즐기는 여가 수단으로는 마작이나 주패 같은 것이 있으며, 가끔 야외에 나가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며 여가를 즐기기도 한다. 그리고

제한된 사람들만, 그것도 평양 시민들만 즐길 수 있는 볼링장, 골프장, 노래방, 기원 등도 있다.

(3) 북한 사람들은 스포츠를 얼마나 즐기고 있을까?

북한은 체육을 집단주의 정신 함양과 신체 발전을 통한 노동력과 국방력 강화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체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며, 특히 1992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매월 둘째 일요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하여 주민의 체육 생활화를 독려하고 있다. 북한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스포츠는 축구, 농구, 마라톤, 탁구 등이며 그 외에는 배구와 권투 등이 인기가 높다. 이들 스포츠는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즐길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농구하는 모습

축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지시로 전 지역의 시·군 체육 구락부 내에 축구팀이 신설됨으로써 활성화되었고, 각종 국내 대회 개최와 TV 중계를 통해 인기 종목으로 떠올랐다. 남자 축구단은 실력에 따라 1급~3급 체육단으로 분류되고, 선수들은 공화국 선수권대회(매년 9월~10월 중 개최)의 평가를 통해 차상급 체육단으로 발탁하며, 여자 축구팀은 현재 일반·대학팀 20여 개와 고등중학교팀 5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농구는 국가 정책에 의해 “농구를 많이 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키가 커지고

심폐기능도 좋아지며 운동량에도 좋다.”라는 이유로 권장되어 널리 보급되었으며, 키가 235cm나 되는 리명훈이 등장하면서 그 인기가 높아졌다. 특히 단일 종목 대회로는 흔하지 않게 8·28청년컵 쟁탈 농구 경기 대회를 신설(1997. 8)하는 등 농구의 육성·발전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농구 수준 또한 아시아에서 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높아졌다.

마라톤은 북한 주민의 기호와 체질에 맞을 뿐만 아니라 국제 대회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의 하나로서 국가적으로 장려되었으며, 뛰어난 선수도 많이 배출되었다. 특히 정성옥 선수가 1999년 8월 스페인 세비아에서 개최된 「제7차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여 체육계에서는 처음으로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게 되면서 인기 종목으로 부상하였다.

탁구는 전 지역에 걸쳐 조직되어 있는 수백 개의 탁구 구락부를 중심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1991년에 구기 종목 사상 최초로 남북한 단일팀을 결성하여 일본 지바에서 열린 「제41차 세계 탁구선수권 대회」 여자 단체전에서 우승하는 등 축구와 더불어 남북한 체육 교류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977년 공화국 선수권 대회를 창설하여 북한 정권 창건일(9. 9.)에 즈음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30여 개 종목이 3일~7일 정도의 기간동안 치러진다.

(4) 북한 사람들이 우리의 대중가요를 부른다는데?

북한 주민들 사이에 우리의 대중가요가 널리 불리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 방문자나 북한 이탈 주민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북한 사회에 우리 나라의 대중가요가 전파되는 경로는 해외 동포, 특히 중국의 연변 동포, 일본에서 온 북송 교

포 그리고 KBS 라디오의 사회 교육 방송을 통해서이다.

북한 주민들이 많이 부르는 대중 가요로는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 '돌아와요 부산항에', '당신은 모르실거야', '사랑의 미로' 등이며, 이 외에도 분단 이전에 유행했던 '황성옛터', '봉선화' 등이 있다. 이러한 노래들은 김정일 등 고위층들도 연회석상에서 가끔 불리고 있다. 그리고 2000년에 김정일의 지시로 해방 이전 불리던 트로트 가요들을 '계몽기 가요'라는 이름으로 해금하고, '계몽기 가요집'도 190여 곡을 수록하여 발간하였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해방 이후 우리의 대중가요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공공연히 부르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은밀히 불리거나, 곡은 그대로 살리고 가사만 바꾸어 부르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 주민들은 남한 가요라는 것을 모른 채 중국 조선족의 노래(일명 연변 가요) 정도로 알고 부른다고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넘어 온 북한 이탈 주민들 중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가 우리의 대중가요였다는 것을 알고 놀라는 경우가 많으며, 북한에 살 때 우리 신세대 가수들의 랩 음악도 일부 알고 있었다고 한다.



생각해 보기

북한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6. 북한 사람들의 일상 생활은 어떨까?

(1) 북한 사람들은 방송을 얼마나 즐기고 있을까?

라디오 방송은 정규 방송인 조선 중앙 방송, 평양 방송 및 평양 FM방송이 있으며 대남 선전용인 '구국의 소리 방송'이 있다. 현재 북한은 이 4종류의 라디오 방송 외에 10개의 지방 방송국과 10개의 유선 방송국, 200개의 군·구역 방송국, 4,300여 개의 방송실이 있다.

유선 방송은 평양으로부터 각 도·시·군까지 연결되어 공장·기업소와 협동농장의 유선 방송실을 통해 각 가정의 스피커로 중앙 방송을 중계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각 가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개인 라디오는 다이얼을 고정시켜 평양에서 방송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방송도 들을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다.

TV 방송의 경우에는 조선 중앙 TV, 만수대 TV, 평양 교육 문화 TV 등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조선 중앙 TV인데 영화나 가극의 비중이 높다. 우리나라의 방송과 다른 점은 방송 시간이 평일 6시간, 공휴일 13시간으로 우리보다 방송 시간이 적다는 것이며, 또한 사회주의의 특성상 광고가 없고 사회 내의 범죄나 고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없다는 점이다.

북한은 조선 중앙 TV를 1999년 7월부터 태국의 타이콤 위성을 이용하여 위성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시청이 가능하다(통일부 통일교육원이나 북한자료센터에서 시청할 수 있다).

(2) 북한도 우리와 같은 명절을 보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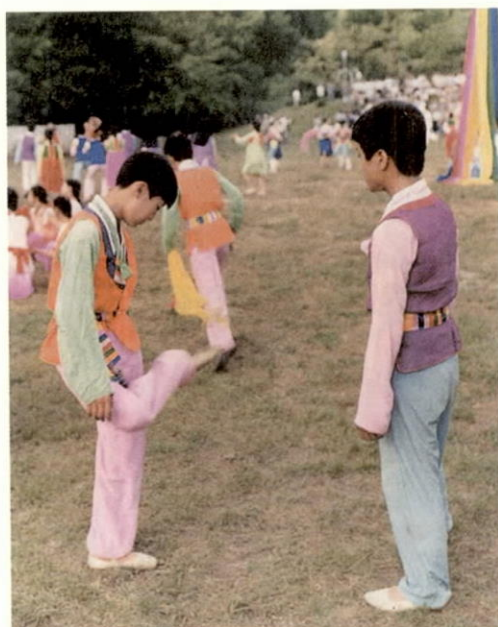
북한에서 명절은 우리나라처럼 전통 민속 명절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 외에 국가 경축일, 국제 기념일까지를 통틀어서 말하는 개념이다. 설, 단오, 추석

등은 따로 '민속 명절' 이라고 부른다.

우리 민족의 4대 명절인 설, 단오, 한식, 추석은 1967년 7월 "봉건 잔재를 뿌리 뽑아야 한다."라는 김일성 주석의 지시에 의해 공식적으로 사라졌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부활되었다. 민속 명절이 부활한 것은 이산가족 찾기 사업, 해외 동포들의 방문, 1980년대 말부터 부쩍 늘어난 '우리식 사회주의', '조선 민족의 우월성' 등의 선전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날을 쉬면 '대휴'라 하여 내각이 고시한 그 전후의 일요일에 빠졌던 일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완전한 법정 공휴일이 아닌 '반쪽 휴일'이라 할 수 있는데, 요즘은 그냥 쉬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설(1. 1.)과 김일성(4. 15.)·김정일(2. 16.) 생일, 정권 창건일(9. 9.), 당 창건 기념일(10. 10.) 등을 '5대 명절'로 간주하고 다른 명절 때보다 더 많은 특별 배급을 한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냥 보내는 우리 고유의 민속 명절보다 특별 배급이 나오는 김일성·김정일의 생일을 오히려 더 기다린다. 북한 주민들도 추석, 설날 같은 민속 명절 때에는 성묘를 가는데, 우리처럼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지는 못하고 형편에 따라 간단한 음식을 차려 놓고 별초를 하며 성묘한다. 또한 주민들은 여기저기 이동하는데 제한이 있어 우리처럼 모든 가족·친지들이 모이기 위해 이동하는 소위 '민족 대이동'은 없다.



명절날 제기 차는 북한 어린이들

(3) 북한에서는 종교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원래 평양은 해방 전에는 '동방의 예루살렘' 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독교와 천주교 활동이 활발하였으며 불교, 천도교 등과 함께 주민 생활 속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 지역이 공산화된 후 종교를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세계관' 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종교 활동을 금지하였다.

그러다 1972년 남북 대화가 시작되고, 1980년대 해외 동포 종교인들의 북한 방문이 활발해지면서 외형상 각종 종교 단체를 만들고 종교 행사도 개최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외적인 행사용이지 결코 주민의 자율적 종교 활동은 아니다.

현재 북한에는 기독교 계통으로 봉수 교회, 칠골 교회가 있고 천주교 계통으로는 평양 장충 성당이 건립되어 있다. 사찰에는 승려가 있으나, 이들은 머리도 기르고 가정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천도교' 는 민족 종교로서 아직도 북한 내에서 많은 신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위상이 다른 종교보다는 높은 편이다. 그 예로 2000년 8월 15일 북한측 이산 가족 100명을 인솔해 온 류미영은 바로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장이다.

재미있는 것은 집안 대소사와 관련하여 복채를 들고 가서 점을 본다거나 푸닥거리를 하는 등의 무속신앙은 당국에서도 특별히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기

북한에서 종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7. 북한의 교육 제도는 어떨까?

(1) 북한의 학제도 우리처럼 초·중·고로 나뉘어 있을까?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인데, 북한은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대학 4~6년으로 초등 교육 단계에서 우리보다 2년이 짧다. 여기에 유치원 높은반 1년의 의무교육 기간을 포함하면 '(1)-4-6-4(6)제' 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유치원은 낮은반과 높은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높은 반부터 의무 교육이 시작된다.

중등 교육 과정에서 우리는 중학교 3년과 고등학교 3년으로 구분하는데, 북한에는 이러한 구분이 없고 고등중학교를 6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에는 우리의 농업·공업·정보산업 학교 같은 실업고등학교가 없다.

북한에서 기술 교육은 중등 교육을 마친 이후 기술자 양성 기관이나 대학에서 이루어진다. 직업 교육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생들을 일찍부터 차별하여 노동자로 만들고 천대하는 교육이라고 비판하기 때문에 직업 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의 중학교 2학년은 북한의 학제로 따지면 어디에 속할까? 만일 유치원 높은반 1년 과정을 쳐주면, 고등중학교 3학년이 된다.

(2) 북한의 고등중학교 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배울까?

북한의 고등중학교 학생들도 우리처럼 국어, 역사, 한문, 지리, 수학, 물리, 화학 등을 공부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없는 정치 사상 과목이 있다. 즉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 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 력사', '경애하

는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 혁명 활동', '공산주의 도덕' 등의 제목을 가진 과목이다. 그리고 우리와는 달리 모두 남녀 공학이기 때문에 여학생에게는 여학생 실습 과목이, 남학생에게는 공작 실습이 따로 나뉘어져 있다.



생각해 보기

남한과 북한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8. 북한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어떨까?

(1) 북한의 고등중학교 학생의 하루 생활은 어떨까?

북한에서 학생들의 등교 시간은 7시 30분이다. 주변은 이보다 더 일찍 등교해야 한다. 지각을 하면 벌칙으로 학교에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거나 청소를 한다. 8시에 수업을 시작하여 오전에 5~6교시까지 수업을 한다. 매 수업 시간 이후 쉬는 시간은 10분이며, 2교시 후에는 수업 중간에 체조 시간이 30분 있고, 오전 수업이 끝나면 준비해 온 도시락을 먹거나 집이 가까운 학생은 집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2시에 수업을 다시 시작한다.

정규 수업이 끝나는 오후 3~4시 이후에는 담임 교원의 지도 아래 하루 또는 한 주일 동안의 생활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결의와 각오를 발표하는 일일 또는 주간 생활 총화 시간을 갖는다. 생활 총화 시간 이후에는 과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소년단이나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 동맹이 작성한 월별·주별·일별 사업

계획서에 따라 당 정책 계몽 선전 활동, 학교 주변 청소와 같은 보건 위생 활동, 그리고 파고철 수집 등 외화 벌이를 위한 근로 봉사(봉사에 동원되고 사상 교양을 위한 영화나 시 감상 모임 등에 참석하게 된다. 보통 저녁 5시가 되어야 이러한 활동이 모두 끝나 집으로 돌아가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며, 집안 청소, 빨감 마련 등 크고 작은 집안 일도 돕고 학교 숙제도 한다.

(2) 시험은 어떻게 치를까? 유급이나 퇴학이 있을까?

북한에서의 학력 평가는 학기말 시험, 연말 시험 및 1년에 2~3회에 실시되는 부정기 시험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각 시험은 “무엇에 대하여 논하라.”라는 형태의 주관식이다.

일반 과목은 낙제점을 받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교사들도 학생들의 일반 학과 성적에는 관대한 편이나, ‘혁명력사’, 김일성·김정일 문헌 학습 등 사상 학습과 관련된 과목은 낙제시 엄중한 자아 비판을 받는다.

학업 성적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시험을 포함하여 학과 토론, 실험 실습, 학과 논문, 사회 정치 활동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북한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적부에 학력 점수와 생활 점수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학력 점수는 5(최우등: 시험 문제·시험관의 보충 질문에 모두 답변), 4(우등: 시험 문제 모두 답변, 그러나 시험관의 보충 질문에 답변 못함), 3(보통: 시험 문제 가운데 한 가지를 답변하지 못함), 2~1(낙제: 시험 문제 가운데 한 가지도 답변하지 못하거나, 시험 문제 가운데 절반 이상을 답변 못함)의 5단계로 기록하고 생활 점수는 ‘모범/락후’의 2단계로 기록한다.

한편 유급은 인민학교의 경우 국어, 산수 성적이 3점(보통) 미만이면 특별 과제

를 줘서 다음 학년 초에 재검하여 결정한다. 고등중학교는 3점 미만의 과목이 3과목 이상이면 유급 당하게 되어 있다. 유급은 두 번까지 가능하며 세 번 이상일 경우 퇴학 당한다.



생각해 보기

북한식의 주관식 시험과 우리나라의 객관식 시험의 장단점을 생각해 봅시다.

9. 북한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은 어떻게?

(1) 북한 청소년들은 과외 활동을 어떻게 하나?

북한은 과외 활동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 다르다. 우리의 과외 활동이란, 학교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서 학생 개개인의 잠재 능력 개발이 일차적인 목표이고, 그 다음에 사회 활동영역으로 확대된다. 이와는 달리 북한의 과외 활동은 혁명 인재의 양성과 노력 동원을 위한 조직 활동이다. 따라서 과외 활동의 내용도 우리와 아주 다르다.

북한의 모든 청소년들은 소년단과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 동맹에 입단하여 조직 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 이 조직을 통하여 수행하는 활동은 매우 다양하다. 소년단은 인민학교 2학년부터 고등중학교 4학년까지 학생들이 주로 정치 사상 교양, 생산 노동, 생활 총화 등에 참여한다. 생산 노동으로는 '좋은 일하기 운동'이라 하여 토끼 기르기, 파리 잡기, 소년단립 가꾸기, 각종 폐품 수집 등을 한다. 고등중학교 5학년부터 가입하는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 동맹에서의 활동은 공산주의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과외 활동도 요일에 따라 시기에 따라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사상 학습, 화요일은 과외 체육, 수요일은 소조 활동, 목요일은 소년단·김일성 사회주의 청년 동맹의 날, 금요일은 대청소, 토요일은 주 생활 총화와 같이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외 활동이 모두 집단 활동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다.

또한 소년단과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 동맹에서는 혁명에 대한 신념을 공고히 하고 김일성 일가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혁명 사적지와 전적지를 찾아 답사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연간 학사 일정〉

학 기	월	학 사 일 정	
상(반)학기	4	상학기 수업	
	5		
	6		
	7		여름방학(7월하순-8월)
	8		
하(반)학기	9	하학기 수업 (9월초-12월말) 겨울방학 (고등중학교 1-3학년 : 1월초부터 2월중순 고등중학교 4-6학년 : 1월 한달간) 하학기 수업 계속 (겨울방학 후-3월 마지막 전주) 봄방학(3월 마지막 주를 전후하여 약 10일간)	
	10		
	11		
	12		
	1		
	2		
	3		

(2) 북한 청소년들은 컴퓨터를 얼마나 즐기고 있을까?



컴퓨터 학습 장면

북한의 컴퓨터 보급률은 그리 높지 않다. 광케이블망이 전국 70여 개 시·도·군으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컴퓨터 생산이 아직 기초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처럼 가정마다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최근 적극적인 정보산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각 시·도마다 있는 제1고등학교 외에 일부 학교에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조립한 컴퓨터가 보급되어 북한에서도 컴퓨터 교육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북한은 자본이 많이 필요한 하드웨어 부문의 개발보다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보다 치중하고 있고 실제로 일부 프로그램은 상당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평양이과대학, 김일성종합대학, 평양·함흥 컴퓨터기술대학 등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을 많이 양성하고 있으며, 평양정보센터나 조선컴퓨터센터에서는 소프트웨어용 프로그램들을 활발히 만들고 있다.

북한이 가장 경쟁력을 갖춘 소프트웨어는 인식 시스템 관련 분야로 꼽힌다. 실제로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의 조선컴퓨터센터에서 마이크로 말을 하면 글자가 모니터에 나타나는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조선컴퓨터무역센터에서 개발된 바둑 프로그램 '은별'은 국내에서도 이미 많은 사용자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1998년 세계 컴퓨터 바둑대회인 FOST배에서 그

동안 아성을 쌓아온 일본 제작 프로그램인 “천하수담”과 “메두사”를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뛰어난 제품이다.

오락 게임도 물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가 개발한 ‘청개구리’ 시리즈와 ‘드래곤’인데, ‘드래곤’은 울타리 안을 달리고 있는 공룡을 쏘아 잡는 게임이라고 한다. 이 밖에 개인용 컴퓨터에 사용 가능한 많은 게임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다.

한편 북한 청소년은 인터넷을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은 외부 세계와 접촉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지만, 북한은 주민들의 외부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WWW(World Wide Web)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국가안전보위부(우리의 국가정보원), 인민무력부(우리의 국방부) 및 조선컴퓨터센터 등에서는 극히 일부 계층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이 즐겨찾는 ‘PC방’ 같은 것을 북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우리 청소년들이 즐기는 고차원의 컴퓨터게임이나 DDR 등도 즐기지 못한다.

물론 평양과 같은 대도시에는 학생소년궁전(어린이회관) 같은 곳에 전자 오락기가 있어 그곳을 찾아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도 일부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 청소년들은 그런 기회마저 없다.

(3) 우리처럼 팬클럽을 만들 정도로 인기 있는 연예인이 있을까?

연예인을 북한에서는 ‘대중 예술인’이라 부른다. 우리처럼 북한에서도 유명 대중 예술인은 청소년들의 선망의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일반 주민들과는 다른 대우와 명예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극영화 ‘꽃파는 처녀’에서 주인공 꽃분이 역을 맡았던 홍영희나, 영화 ‘도라지 꽃’의 주연을 맡았던 오미란은 둘 다 인민 배우 칭호

를 얻은 인기 스타이다. 오미란은 북한이 최근 심혈을 기울여 제작, 발표 중인 시리즈 영화 '민족과 운명'에서도 중요한 배역을 맡고 있다. 남자 배우로는 역시 '민족과 운명'에서 박정희역을 맡았던 김윤홍, '림격정'의 주인공이었던 최창수 등이 인기가 높다.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는 일부 가수들은 극장이나 문화 회관 등에서 독창회를 갖기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가수들이 하는 콘서트와는 다르며 그 횟수도 매우 드물다. 북한에서 인기 있는 대중가수로는 '휘파람'을 부른 전해영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전자 음악 악단이 생겨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보천보전자악단의 경우, 신시사이저와 같은 전자 악기뿐만 아니라 전통 악기도 혼용하고 있으며, 성악이나 무용의 전속 배우와 합창단도 두고 있다. 히트곡 '휘파람'도 보천보전자악단에서 창작한 것이다.

북한에는 우리와 같은 열성적인 '오빠 부대'는 없지만 연예인을 좋아하고 표출하는 마음은 같다고 한다. 일례로 예술 잡지나 화보에 실린 전해영이나 오미란의 사진은 어김없이 오려져 책상 서랍에 보관되거나 기숙사 방 벽면에 붙여진다. 북한에도 '성과편지'라고 하는 팬레터가 있는데, 199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의 신세대들은 인기 연예인들에게 공연 축하 성과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성과편지를 가장 많이 받는 인기 연예인은 북한 최고의 미인이라고 찬사를 받는 영화배우 오미란인데, 연예인을 좋아하고 그 마음을 표출하는 것은 남과 북이 모두 마찬가지인 듯하다.

(4) 북한 청소년들이 즐겨 보는 만화영화는?

현재 북한의 문화 산업 중 가장 발달한 부문이 애니메이션 분야이다. 해마다 약 100여 명의 전문가들이 평양연극영화대학, 평양미술대학 등에서 배출되고 있으

며 '조선4.26아동촬영소'에서는 1,000여 명의 애니메이션 전문가와 디자이너들이 프랑스와 합작하여 세계적 수준의 만화 영화를 만들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라이언 킹', '포카혼타스' 같은 만화 영화에 참여하였다.



만화영화 '소년장수'의 한 장면

이러한 영향 탓인지 북한 역시 우리나라처럼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까지도 만화 영화를 대단히 좋아한다. 그것은 대부분의 영화들이 김일성·김정일을 미화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만화 영화는 주로 전래 동화나 우리 역사, 동물들을 주제로 교훈적이고 재미있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만화 영화를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해서 만들지만 북한의 경우는 다르다.

만화 영화 한 장면, 한 장면을 수백 명의 만화가들이 손으로 그린 다음 그것을 촬영하여 만화 영화를 탄생시킨다. 이렇게 만들어진 만화 영화들은 컴퓨터로 합성한 영상물보다 더 생동감이 있고 재미있어 북한 사람들은 만화 영화가 방영되는 시간이 되면 온 가족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는다.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 영화로는 <소년장수>와 <영리한 너구리> 등이 있다.

이 밖에 북한사람들은 외국의 만화영화도 즐겨 보고 있다. 평양 사람들만 시청할 수 있는 만수대 텔레비전에서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외국 영화와 함께 외국 만화 영화도 방영하는데, 이 코너에서 디즈니 만화인 '톰과 제리'가 방영되어 높은 인기를 얻었다고 한다.



클릭

알고 싶어요

○ 북한 만화영화나 북한 뉴스 등을 직접 볼 수 있을까?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02-730-6658)에 가서 신청하면 볼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상으로는 통일교육원 사이버통일교육센터(www.uniedu.go.kr)나 국내 주요 일간지 사이트에서 즐길 수 있다.



생각해 보기

북한 만화와 우리 만화의 내용, 구성, 제작 방법 등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III

하나됨을 위하여

1. 왜 통일을 해야 할까?
2.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야 할까?
3. 통일을 준비하는 청소년의 마음가짐과 자세

Ⅲ . 하나됨을 위하여

1. 왜 통일을 해야 할까?

(1)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살기 위하여

우리 민족은 6·25 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남과 북은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며 대결을 계속해 왔다.



휴전선을 지키는 국군

오늘날 한반도는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지금도 250km(155마일)의 휴전선에는 중무장한 군대가 대치 상태에서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 분단이 지속되어 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 그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이룩한 모든 물질적, 문화적 성과를 송두리째 앗아가 버릴 것이며, 6·25 전쟁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리고 설사 전쟁이 없더라도 남북한이 대결적 분단 관계를 지속해 나간다면, 우리는 늘 전쟁의 공포 속에서 불안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과거의 6·25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치유하고, 나아가 분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동족상잔의 공포와 위협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점에서 절실하다. 통일은 남북한 간 불필요한 대결과 경쟁으로 인한 민족 역량의 낭비를 막고 영원한 평화가 이 땅에 자리 잡게 할 것이다.

(2) 이산의 아픔을 넘어 한겨레로서의 삶을 위하여

남북한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는 문제는 정치·이념·체제를 초월한 지극히 인도주의적인 문제이다. 혈육 상봉의 한을 풀지 못한 채 눈을 감는 이산 1세대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한을 생각해 볼 때 통일은 너무도 절실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00년 8월 15일, 서울과 평양에서의 남북 이산가족 만남은 이산가족들만의 감격 어린 눈물 잔치가 아니었다. 이들이 서울과 평양에서 저마다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진 얼굴로 부둥켜안고 오열할 때 온 세계도 함께 울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남북한 이산가족들이 50여 년간 참았던 눈물을 쏟아 내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분단과 이산의 아픔을 새삼 실감했다.

통일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알려진 신세대들도 이산가족의 만남이 '가족의 고귀함'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한 학생은 "외아들이니 집에서 떠받들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 모습을 본 후 제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부모 형제의 소식도 모른 채 50년을 떨어져 산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사랑해요 부모님, 누나들!"이라며 가족의 소중함을 표현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남북 이산가족의 만남은 우리 사회의 세대 간, 가족 간에 패어 있는 골을 메우는 효과도 가져오고 있다.

(3) 남북의 분단 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청소년들은 통일을 하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의 경제 건설이나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걱정하면서 현재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고 좋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통일을 하지 않고 분단이라는 이 상태를 유지하면 반대로 분단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감을 알아야 한다. 분단 비용이란 말 그대로 통일을 하지 않고 남북한이 분단 상태를 유지함에 따르는 비용이다. 예를 들면 남북한이 군사적 대결을 지속함에 따라 막대하게 지출해야 하는 군사비, 남북 간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한 민족 역량의 낭비 등이 있다. 또한 돈으로 계산되지 않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분단 비용으로는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나지 못함으로써 심리적으로 느끼게 되는 이산의 고통, 늘 전쟁의 위험 속에서 살아야 하는 남북한 주민의 심리적 공포, 남북한 국토가 분단됨으로써 경제 규모가 확대되지 못하는 비효율성 등 많은 것들이 있다.

분단 50여 년 동안 지금까지 우리가 지불해 온 이러한 분단 비용들을 계산하면 아마 천문학적 숫자일 것이다. 분단이 계속 지속되면 될수록 이 비용들은 더 늘어날 것이며 통일 비용보다도 더 많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사실 통일 비용이란 것도 말이 비용이지, 만일 통일을 하게 되면 당장 군사비 지출이 줄고, 체제 경쟁 비용이 안 들어가고,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고, 나아가서 대륙과 연결되어 생활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는 등의 이익들이 생겨날 것이므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 '투자 비용' 또는 '통일의 가치'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은 통일 비용을 염려하기 이전에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막대한 분단 비용부터 걱정하여야 하며, 통일이 되면 '통일로 인한 이익들'이 많은 점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4) 우리 민족의 역량을 키워 복지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통일은 남북한의 문화적 장점을 합치게 하여 우리나라를 미래의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할 것이다. 남한은 전통문화를 현대화한 면이 강한 반면, 북한은 전통문화를 그대로 온전하게 보전하려는 면이 강해, 남북한 상호보완을 통해 문화 강국으로 나아갈 여지를 갖고 있다.

오늘날 국가의 경제 경쟁력은 문화 경쟁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 나라의 문화가 상품 가치를 높이는 브랜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통일로 남북한의 이러한 문화적 장점들이 합쳐지면 우리 민족의 문화 경쟁력은 배가 될 것이다. 단적인 예로 북한은 우리가 많이 아는 만화영화 '라이언 킹', '포카 혼타스' 등 만화영화의 마무리 작업을 외국에서 주문받을 정도로 애니메이션 기술이 뛰어나다고 한다. 만일 우리의 컴퓨터 합성 기술과 같은 첨단 기법과 자본 능력이 북한의 기술과 합쳐진다면 우리 민족의 애니메이션 수준은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는 일본을 능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은 남북한이 대규모 병력과 군사 장비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막대한 군사비를 줄여 사회 보장비나 교육비 등 복지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통일 한국을 복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군 병력으로 들어가는 인원을 산업 생산 인력으로 돌려 생산력을 더 높여 줄 것이다.

(5) 당당한 세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원래 우리 민족은 높은 기상을 가지고 만주 벌판을 누비던 활동적인 대륙 민족이었다. 그러나 분단은 우리 민족의 활동 영역을 좁게 만들었다. 또한 우리의 시야도 왜소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분단은 우리의 활동 영역을 좁혔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안목까지도 한반도의 남쪽으로 좁혀 놓았으며, 육로로 중국

과 러시아, 나아가서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은 무엇보다 우리의 생활 무대와 활동 영역을 넓혀 주고 우리의 좁혀진 시야도 넓혀 줄 것이다. 즉 인터넷으로 연결된 오늘날의 세계에 필요한 '세계인' 으로서의 폭넓은 사고를 촉진시켜 주고 삶의 경험도 높여 줄 것이다. 특히 경의선 연결을 통해 이어지는 국토의 연결로 북한에 널려 있는 고구려, 고려, 발해 등 역사 문화 유적지에 수학여행을 가고, 백두산, 묘향산, 구월산 등 명산에 등반도 하며, 기차를 타고 유럽 대륙으로까지 배낭여행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청소년들은 통일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도 직접 이익을 주는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 보기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음으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야 할까?

(1) '완전한 통일' 보다는 '사실상의 통일' 을 먼저

남북 정상 회담 장면을 보면서 독일의 한 공영 방송 한국 주재 지국장은 '통일에는 교과서가 없다' 는 독일인들의 교훈을 상기하면서, "독일은 1970년에 정상 회담이 이루어지고 나서 20년이 지난 1990년에야 통일을 달성했다.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난 것을 축하하지만 남북통일이 쉽사리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

는다. 성급한 기대나 낙관보다는 남북이 합의한 내용들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남북 정상 회담 이후 남북한은 평화 정착과 화해·협력을 위해 과거보다 더 많은 협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남과 북이 오랫동안 분단 과정에서 갈등과 반목을 계속해 오며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한 현실을 볼 때 무엇보다 필요하다.

남과 북은 반세기도 넘게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나뉘어 유지시켜 왔다. 남북한의 체제 차이는 어느 날 갑자기 쉽게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남북한 주민의 가치관과 삶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오랜 정치적·군사적 대결 속에서 서로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이질감도 크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통일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 설사 법과 제도가 통합된다 하더라도 ‘마음의 통합’이 안 되어 또 다른 갈등을 만들 것이다.

독일 통일 사례는 통일은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해야 통일 이후에 후유증이 적음을 보여 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실상의 통일’을 이룩한 다음 ‘완전한 통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사실상의 통일’이란 비록 법적인 통일은 안 되었지만, 남북한 주민이 서로 오고 가며 교류하고 서로 이익을 나누는 등 분단이 전혀 일상생활에 장애를 주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남북한이 떨어져 살아온 세월이 긴 만큼 우리 청소년들은 ‘사실상의 통일’을 만드는 것이 통일의 준비임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제도의 통일’보다 ‘마음의 통일’을 먼저

북한에서 어머니와 함께 우리나라로 넘어온 영철이가 처음 학교를 간 날이다.

○○중학교 2학년 3반에 배정된 영철이의 담임선생님은 학급생들에게 영철이를 소개하며 서로 사이좋게 놀고 낯선 곳에 온 영철이를 많이 도와줄 것을 당부하였다. 즐거운 점심시간이 되었다. 옆에 앉은 석래가 영철이에게 자기가 싸 온 도시락을 같이 먹자고 말한 순간 영철이는 “일 없어, 야!”라고 말했다.

“일 없어? 아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남의 호의를 무시하니?”

“아니, 그게 저 …… 나는 다만 ……”

영철이는 정말로 석래의 호의를 무시한 것일까? 영철이는 다만 ‘괜찮다’고 겸손하게 말한 것뿐이었다.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왔던 사람들 사이에 마음의 통합이 어렵다는 것은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많은



평양 학생 소년 예술단의 서울 공연 모습

북한 이탈 주민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 생활양식 때문에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질적 가치관, 생활양식, 문화 의식으로 인한 행동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눈으로 바라볼 때 참기 어려운 고통이라고 호소한다. 따라서 우리는 제도 통일 이전에 남북한 주민들 간 마음의 통합부터 먼저 이를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 남북한 간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단일민족으로서 분단의 시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같은 문화 속에서 생활해 왔다. 하지만 동일한 사회 속에서도 문화는 변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정치·경제 체제 속에서 반세기 동안 생활해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같은 면 못지않게 다른 면도 많이 갖게 되었는데, 석래가 못 알아들은 “일 없어.”라는 말도 바로 그러한 예의 하나이다. 아마 앞으로 남북한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오고 가며 만나고 하면, 이러한 예기치 않은 갈등은 심심찮게 일어날 것이다.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통일 이후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통일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서 통일한 나라들의 교훈을 거울로 삼아 우리는 지금부터 마음의 통일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북한의 사회와 문화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직·간접으로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3) ‘평화 지키기’ 못지않게 ‘평화 만들기’ 노력도

남과 북은 지금 휴전 상태로 군사적으로 대치해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평화 협정을 맺을 때까지 통일로 가는 길에 튼튼한 안보, 즉 ‘평화 지키기’(peace

keeping)는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다.

그러나 평화란 지키면서 얻어지기도 하지만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대치 상태로 있던 상대방이 대결의 관계에서 협력과 대화의 관계로 바뀔으로써 평화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평화는 북한이 더 이상 남한을 '적화 혁명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우리와 화해하며 '더불어 살고 같이 발전해 나가는 대상'으로 보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이는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 만들기' (peace making)를 하여 남북한이 교류 협력을 활발히 하고, 서로에 대한 의존 상태를 높여 나감으로써 이루어진다.

흔히 우리는 안보란 적에 대해 방어하는 것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소극적 안보로서 평화를 완전히 정착시키지 못한다. 요즘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중동 사태가 바로 그 예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일정 거주 지역을 정해 서로 침범하지 않기를 약속했다. 그러나 우발적인 사건으로 갈등이 폭발하면서 평화는 깨지고 말았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는 서로 화해하며 더불어 살아가기를 약속하는 평화 협정이 맺어질 때 가능해지고, 그렇게 될 때 양쪽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안보도 지켜질 것이다.

남북한도 지금과 같은 방어 차원에서 지켜지는 평화가 아니라 화해·협력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서로가 대결의 상대가 아니라, 서로의 발전에 필요한 존재로 자리 매김 함으로써 평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평화 만들기는 평화 지키기 노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가능하므로, 남북한 간 완전한 평화 정착과 통일로 가는 길에 '안보를 확고히 다지는 것'과 '남북한 화해 협력을 활발히 하는 것'은 두 개의 수레바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통일로 가는 토대임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북한의 변화를 도와 가며 함께 발전하는 길로

남과 북은 각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해 왔지만 1970년대 이후에는 경제 격차가 현저히 커지면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체제 경쟁은 그 의미가 없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력 격차는 통일을 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그들보다 잘사는 것을 굳이 자랑할 일은 못 된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윤택해져서 우리를 대할 때 대등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최근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그 나름대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와의 경제 교류 협력에 적극적이며 우리의 대북 식량·비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미국의 경제 제재도 해제받기를 바라고 있다. 그들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유예하고, 무기 수출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에 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도 담겨 있는 것이다.

북한은 정치적으로 보면 수령 절대 체제라는 모습에 변함이 없으며 집단주의 생활 체제도 그대로 유지하고 여전히 군사 부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일부 경제 활동에 시장 경제적 요소들을 도입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협동농장에서 국가 요구량을 상납하고 남은 농작물의 일부를 자유롭게 판매하게 한다거나, 공장마다 수익을 내는 일부를 인정한다거나, 텃밭이나 개인 밭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개인의 소유로 인정함으로써 개인의 소유 범위를 늘려 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02년 9월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지정하여 시장경제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금강산도 개방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사람들이 관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말하자면 국가가 개인의 경제 활동 모든 것을 철저히 통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금씩 아래로 권한을 주며 외부 세계와의 경제 관계를 넓혀 가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주민들의 의식 구조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지역의 배급제 붕괴로 주민들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개인적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이동이 많아지면서 외부 세계의 정보가 북한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다. 방북자들에 따르면 북한의 엘리트 계층들도 북한이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나가 활동하는 것이 “북한이 살 길”이라고 은밀히 말한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지도자들은 북한이 경제난을 회복하는 길은 개혁·개방이지만, 그러기만 하면 곧 북한 체제가 위협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을 결코 흡수하거나 해칠 의도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고 또한 그것을 일관되게 실천해 왔다. 국제 사회도 우리의 노력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북한의 나름대로의 변화를 도와주면서 함께 잘 사는 길을 모색하며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북한도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은 이처럼 남북한이 상대방을 적대시하거나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체제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한쪽이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핏줄인 우리 한민족이 함께 잘 살고 번영하는 것이다

(5) 주변 국가들의 협력과 뒷받침을 통일의 서까래로

우리에게 통일 문제는 민족 내부의 문제이면서 국제 사회의 협력도 필요한 국제 문제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남북 분단이 우리 민족이 결코 원하지 않았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주변국들 간의 힘의 대결, 특히 미국과 소련의 대결로 인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6·25 전쟁의 동족상잔으로 분단이 더욱 굳어져 버렸음

은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이 우리 민족이 원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주변 국가들의 협조와 지지도 있어야 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 주변 국가들은 각자 자신들의 국가 이익에 따라 한반도에 통일 국가가 등장하는 것을 저울질하고 있다. 통일 한국의 등장은 어떤 형태로든 자신들의 국가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우리 민족의 역량이 통일의 주춧돌이라면, 주변국들의 협조는 통일의 서까래라고 생각하고 주변국들의 이해와 협력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반도에 통일 국가가 등장하는 것이 그들 국가들에게도 이익이 됨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한반도가 '화약고'가 아닌 평화 지대가 되면 동북 아시아에 평화를 가져오고 주변국들에게도 번영을 가져다 줌을 인식시켜야 하고, 특히 남북 분단으로 막혀 있는 '철의 실크로드'가 연결되어 동북 아시아에 보다 많은 경제적·문화적 번영의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이해시켜야 한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은 인터넷 등으로 우리 주변국 청소년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질 때 이런 점을 확신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북한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국 어느 국가들도 우리의 통일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통일 역량을 키우는 가운데 한반도 통일이 하나로 연결되는 지구촌 시대의 완성을 가져다 줌을 주변국들에 이해시켜야 하겠다.

3. 통일을 준비하는 청소년의 마음가짐과 자세

(1) 주인 정신을 갖자

힘들고 귀찮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내가 맡아서 실천하자. 우리 사회에는 익명으로 자기 자신을 숨긴 채 무책임하게 생활하려는 사람이 많다. 내가 하기 싫다고 타인에게 미룬다면 타인 또한 좋아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이룩되지 못하고 모두가 불편하게 될 것이다.

어려운 일을 해 보려는 도전정신을 가진 의욕적인 청소년이 되도록 하자. '이 세상은 내가 주인'이라는 주인 의식을 갖는다면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 성취하려는 자세도 필요하다.

통일도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가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2) 강한 의지력을 키우자

턱걸이를 하는 학생들을 보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나는 턱걸이를 하나도 못하니까."하면서 자포자기하는 학생이 있다. 온갖 인상을 찌푸리며 안간힘을 다 쏟는 학생의 얼굴에서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구경을 하던 많은 친구들이 박수를 보내고 응원의 함성을 지를 때 그 학생은 드디어 "생애 첫 턱걸이 하나를 하였다."라는 기쁨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우리 청소년의 올바른 모습이다.

어떤 청소년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아니면 친구에게 도움을 얻어 해결하려고 한다. 이는 자신감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자기에게 닥쳐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강한 의지력을 키워야 한다.

통일도 우리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력을 갖는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달성할 것이다.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는 어떠한 장애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사랑을 주고받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우리는 흔히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지만, 사랑을 받을 때 보다는 줄 때 몇 곱절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된다. 서로 나눠 주고, 베풀고, 아껴 주려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자.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주변의 이웃들을 서로 사랑하고 아껴 줄 때 자신의 성장과 나라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성장도 마찬가지다. 북한 땅에 사는 사람들을 한 동포로 생각하고 동포애를 가지며 사랑을 나눌 때 통일 국가 성취라는 우리 민족의 염원은 이룩될 것이다.

(4) 현명하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자

우리 조상들의 전통적인 지혜와 덕목을 계승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도 갖추도록 하자.

새롭고 건전한 생각을 가진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이며, 현명하고 합리적인 생각이야말로 남북통일을 달성하는 기본적 틀이다. 통일 문제도 감정적이기보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해결해 나가는 자세를 길러 나가야 한다.

(5) 남의 말을 귀담아 듣고 내 의견을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능력을 키우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은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을 뿐만 아

나라 잘못하여 문제를 그르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큰 목소리보다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들을 수 있는 겸손한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한다.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은 경제력이나 국력이 앞선 우리나라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보려고 하기보다는, 경제력이 우리보다 뒤처져 있는 북한의 입장도 생각하며 바라보려는 냉철한 자세를 갖고 남북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6) 세계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자

세계는 이제 '지구촌'이라 할 정도로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과 관련이 있으면 냉정하고 예민하게 다른 나라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 세계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진다면 결코 세계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힘든 사회이다.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변화에도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통일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 남북 분단의 원인과 과정에서도 나타나듯이 통일 문제는 분명 우리 문제이지만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으므로, 우리는 주변국들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무조건 외세라 하여 적대시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통일을 적극 도울 수 있도록 이끄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7) 남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자

자기 자신과 함께 남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청소년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하여 항상 배고픈 생활, 추위에 고통 받는 생활을 해 왔다. "내 자식만큼은 잘 입히고, 잘 먹여서 키워야겠다."는 것이 부모님들의 생각이었다. 이러한 부모님의 배려 속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건강

하고 예쁘고 똑똑하고 체격도 우람한 멋진 자녀들이 되었다.

그러나 예전처럼 형제자매들이 서로 위하고 나눠 주고 아껴 주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워졌다. 내가 아닌 남을 공경하고 남과 나누는 따뜻한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이 따뜻한 인간'이 아니라 '머리는 냉정하고 가슴도 차가운 인간'으로 잘못 성장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통일은 나와 무관한 일이다.”

“통일이 되면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나?”

“지금 이대로가 더 좋다.”

“통일되면 못사는 북한 주민을 위해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내야 되는 것 아닌가?”

“통일에 대해 관심 없다.”

이런 청소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서로 아껴 주고 남을 배려할 수 있고, 내 것을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청소년이 되어야만이 앞으로 북한 친구들을 이해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다.

(8) 민주 시민으로서 질서를 습관화하자

기본 생활 습관이 충실한 사람은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가정, 학교, 사회에서 질서를 생활화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내가 먼저 질서를 지킨다면 우리 학교, 사회, 국가는 민주적인 사회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버스 탈 때 줄 서기, 식당에서 줄 서기 등은 문화 선진 국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이다.

새로운 통일 국가는 분명 지금보다 더 나은 민주 사회의 모습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자신도 보다 더 민주주의를 신념화하고 실천하는 시민이 되어

야 한다.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회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 하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

(9) 화해와 나눔의 정신을 갖자

하나 된 민족의식을 가지려면 '화해 의식' 을 가져야 한다. 남북한은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눈 전쟁으로 서로에 대한 불신, 증오심 등을 아직 씻지 않은 채 살고 있다. 오랜 기간 경쟁과 반목을 해 오으로써 서로를 하나의 동포로 껴안으려는 의식이 부족하다.

지금 북한 동포들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식량난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우리 사회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지만 북한 동포들은 생존의 위기에 놓일 정도로 어렵다.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식량난은 최근 우리나라와 국제 사회의 도움으로 조금 나아졌지만, 완전히 해결될 전망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북한이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 이상의 화해의 메시지는 없을 것이다. 단순히 '물자의 나눔' 이 아니라 우리의 따뜻한 '동포애' 도 전달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나눔' 도 전달되어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화해 의식을 싹트게 할 것이다.

나눔의 실천은 내가 많이 갖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비록 적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우리는 단순히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신에게도 커다란 기쁨이 됨을 깨닫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은 물자의 나눔을 통해 북한의 같은 또래 친구들과 마음의 나눔을 갖는다는 것이, 민족 간 화해 의식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자기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겠다.

(10) 서로 다름을 이해하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 그리고 생활 방법 등이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많이 하는 버릇이 있다. 우리들은 대부분 선진국 사람을 좋아하고 동남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의 못사는 나라 사람들을 멸시하는 잘못된 생각을 마음속에 은연중 갖고 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차별 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청소년들이 친구들을 따돌리는 것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청소년들은 종종 나와 다르게 생각되고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을 따돌리는 일이 있다. 그러나 집단 따돌림(일명 왕따)을 당하는 친구의 고통을 한 번만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남북통일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다. 서로 다른 교과서로 공부하고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북한의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은 통일 조국에서 남과 북이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생활을 실천하여 차근차근 통일을 준비하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



생각해 보기

북한 학생들과 함께 같은 교실에서 생활한다고 했을 때 나의 느낌과 행동은 어떨까요?